

# 스티글리츠 “예비타이어 없는 차처럼 회복력 잃은 경제… 급반등 어렵다”



**조셉 스티글리츠**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경제학 박사  
▶프린스턴대-옥스퍼드대 스탠퍼드대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2001년)



**에드먼드 펠프스**  
▶에일대 경제학 석사  
▶미국 재무부-연방준비제도(Fed) 자문  
▶노벨경제학상 수상(2006년)



사회적 격리, 도시 봉쇄, 세계 경제 위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전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로 몰아넣고 있다.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세계 경제 구조까지 확 달라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한풀 켜어나 싶었던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다.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이런 지구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국내외 전문가들은 국제 공조나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적 접근까지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많은 것이 이미 바뀌었거나 바뀌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혼돈의 세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극복 해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 등을 국내외 석학들에게 들어봤다.

**황정일·김나운** 기자 obidius@joongang.co.kr

**“코로나19가 가져올 경기 불황은 장기적이고 극심할 것이다. 대공황에서 회복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백신 같은 특허를 국제 공조 필요**

코로나19 여파로 사전 녹화로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코로나19는 우리가 만든 경제가 ‘예비타이어 없는 자동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가 없을 땐 잘 작동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순간 회복력을 잃는다”며 코로나19로 침체한 세계 경제가 급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가 ‘V자’형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컨퍼런스**

**“코로나 불황은 장기적이고 극심 부채 구조조정 못하면 더 큰 위기 국가 간 협력으로 돌파구 찾아야”**

**펠프스 “경제 활력 잃고 혁신 타격 사회 소외 이어져 국가 붕괴될 수도 저·중소득층 상실감 해소책 필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의 사회로 박태호 원장, 최병일 교수, 성태윤 교수(왼쪽부터)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많았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CNN, 폭스뉴스 등에 잇따라 출연해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이미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V자형의 급속한 회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스티글리츠 교수는 “코로나19로 각종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이루지 못하면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홉 번째 재무부 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아르헨티나

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기조연설자로 나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2006년) 에드먼드 펠프스(Edmund Phelps)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도 “공공부채가 증가하면 자본과 부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가 다른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 국가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 경제 회복 큰 변수**

펠프스 교수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활력을 잃었고, 혁신도 큰 타격을 받았다”며 “자기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면 국가 붕괴나 사회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두 석학은 각기 다른 관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우리는 하나의 지구에 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념이 다르더라도 국가 간 협력해야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예방을 위해선 지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백신 관련 ‘특허 풀(pool)’을 만드는 등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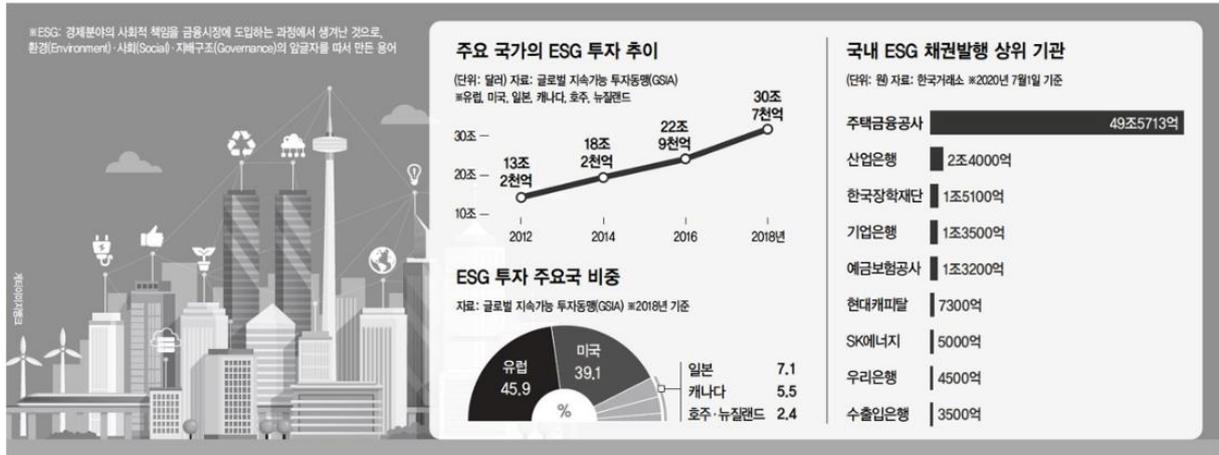
는 것이다. 펠프스 교수는 사람마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세기 미국의 젊은이들은 열정이 넘쳤다”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이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이것이 미국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 국가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는 ‘탈(脫) 세계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화가 불가피하고 (세계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세계화로부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며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량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19로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의 충격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완화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직도 10년, 20년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 추정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선 미·중 무역 갈등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세계 경제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패널로 나온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 구원장은 “미·중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하더라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국제경제학회장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미·중 무역 갈등이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금융시장 ESG 주목, 코로나 수혜테마 추가요

(환경·사회·지배구조)



## 자리 잡아가는 '지속가능투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에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투자와 채권 발행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에스지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기업, 금융회사, 연기금, 자산운용사, 투자자 등 경제주체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스지는 경제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다. 유엔이 2006년 사회적 책임투자원칙(PRI)을 제정하면서 성장의 토대가 마련됐다. 유엔은 기후변화와 대응과 빈곤·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의 장기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지속가능금융'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끌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이를 가속화하는 형국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패러다임 변화' 포럼에서도 국제금융협회(IFI)가 이에스지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 협회의 소니아 기브스 전무는 연설에서 부실한 의료시스템 개선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며 "지속가능금융에서 기후변화 문제 못지않게 사회적 이슈와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자금조달이 중요한 의제가 됐다"고 말했다.

## 코로나로 기업 지속가능성 더 관심 환경·사회적 사업에 큰손 주목 늘어

### 미·일·캐나다서 발달한 ESG시장 투자·채권 발행 규모 매년 증가세

### ESG 원화 채권 발행잔액 60조 그린본드 이어 소셜본드 광장

이에스지 관련 시장은 유럽에서 시작돼 현재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동맹(GSIA) 자료를 보면, 이들 국가의 투자규모는 2014년 18조3천억달러에서 2016년 22조9천억달러, 2018년 30조7천억달러로 증가 추세다.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 보면, 이에스지 채권 시장의 경우 지난해 발행 규모가 4665억달러로 한해 전보다 78% 증가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발행잔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스지 채권은 발행자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환경, 사회적 사업, 지속가능성 증진 사업에 한정에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특수목적 채권을 통칭한다. 사용처에 따라 그린본드, 소셜본드, 지속가능채권으로 나뉜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이에스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트렌드가 되는 양상이다. 국내의 이에스지 관련 투자는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이 주도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이들 연금의 관련 투자는 약 27조원 수준이며, 이중 국민연금이 26조7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내 이에스지 채권 발행은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화채권 발행으로 시작했다. 수출입은행이 2013년 외화 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2018년부터 발행 기관이 늘기 시작했다.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원화 채권 발행은 2018년 5월 산업은행이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해에는 원화 이에스지 채권 발행이 29조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1일 기준으로 발행잔액이 59조9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주택저당증권(MBS)을 소셜본드로 발행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발행분 49조57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발행액이 10조

원을 넘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부터 모든 주택저당증권을 주거복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소셜본드 방식으로 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스지 채권 발행이 주로 그린본드에 집중됐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셜본드 발행이 활발해지고 있는 흐름이다. 발행기관도 공급업 중심에서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민간 금융회사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 코로나19 금융지원 목적으로 4천억원(만기 1년) 규모의 소셜본드를 발행했다. 발행 금리는 AAA은행채 평균 금리(1.22%) 대비 7bp(bbp=0.01%) 낮은 1.15%로 결정돼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국민은행은 전했다. 다만, 아직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조달금리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이에스지 채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어 조달금리 측면에서도 유리한데 국내에서는 금리가 일반 채권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스지 채권 발행 인프라도 점차 확충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5일 관련 채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 포털인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sribond.krx.co.kr)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는 발행기관들의 발행 내역을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등 3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국내 신용평가사로는 처음으로 이에스지 채권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 한국신용평가는 "발행 전 평가(사전평가)에서는 프로젝트의 적정성과 조달자금에 대한 운영·관리 등이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며, 발행 후 평가(사후평가)에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조달자금을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해당 내용을 적시에 공시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헌 기자 hyun21@hani.co.kr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콘퍼런스'에서 온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째)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앞줄 왼쪽 여섯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기관의 투자 패러다임 바뀐다... 비대면 기술·ESG 비중 높일 것”

〈환경·사회·지배구조〉

## 연기금·국부펀드 세션

### 초저금리 고착화에 수익성 타격 감염병 대응분야 투자 영역 부상

“위기 국면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서도 기회 요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해 투자  
하는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CIO)은 26일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  
나은행 국제 콘퍼런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세계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돈을 풀어 제  
로(0) 내지 마이너스 금리가 고착화되면

서 연기금이 초과 수익을 내기가 더욱 어  
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본부장은 “채권 분야에선 매입 대  
상 국채를 확대하고 모기지담보부증권  
(MBS) 같은 구조화 채권과 회사채 등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며 “비대면 등 신기술 및 신산업 투자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선 헤니 샌더 파이낸  
셜타임스(FT) 국제금융담당 수석칼럼  
니스트 사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연  
기금 및 국부펀드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  
로 한 세션도 마련됐다. 이 세션에는 노  
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 미국  
MIT 석좌교수, 안 본부장, 최희남 한국

투자공사(KIC) 사장, 김수이 캐나다 연  
금투자위원회(CPPIB) 아시아-태평양지  
역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가 연기금·국부펀  
드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패러다임에 중  
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머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투자 자  
산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해야 한  
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과거와 달리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보다 자국  
우선주의가 대두하면서 글로벌 투자에  
도 전에 없던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전  
망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의 중

요성도 강조됐다. 최 사장은 “이전까진  
ESG 중 환경 측면이 중시됐다면 코로나  
19 위기 이후로는 실업 증가와 양극화 심  
화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며 “의료 시스템 구축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부문도 주된 투자 영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침체 극복 과정에서 연기금 및 국  
부펀드가 지나치게 ‘정치 수단화’ 되고 있  
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대표는 “각국 정부는 연기금이나 국부펀  
드가 정부의 재정 전략에 동참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며 “수익을 위한 투자를 자  
유롭게 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  
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 코로나發 장기침체, “혁신과 구조개혁만이 살 길이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개월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누적 확진자 1000만 명 돌파는 중국이 작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179일 만이다. 북반구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코로나 확산이 주춤할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바이러스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린다.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미국에선 2차 봉쇄를 준비 중이다.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에도 긴 시간이 걸릴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연 국제 콘퍼런스에서 카르멘 라인히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는 “세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 직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4~5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등 전문가들은 코로나 직후 세계가 쏟아낸 재정·통화정책 덕분에 최악의 상황에 빠져드는 것은 일단 막았지만 ‘V자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은 혁신과 구조개혁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코로나 문제를 극복하려면 조지프 슈페터가 강조한 혁신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통화정책 등 임시 처방만으론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만큼 구조개혁의 근원적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신기술·신상품이 쏟아져 나온 때가 구조적 혁신기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 위기에 따른 구조전환기야말로 혁신의 골든타임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초기 코로나 확산 때 효율적 통제로 ‘K방역’이란 모범사례를 만들긴 했지만 경제 위기 극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단기적인 위기 극복이 어렵다면 우리도 이번 기회를 구조개혁의 호기로 활용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질병인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고, 신사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위기 장기화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지금 세계경제는 예비 타이어 없는 車 ... V자 반등 어렵다”

## 글로벌 경제 세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탄력적으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겁니다.”(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글로벌 경제는 ‘예비 타이어’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원활하게 작동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력이 부족합니다.”(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26일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연 국제 콘퍼런스에서 세계 경제 석학·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는 ‘V자’ 반등 곡선을 그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석좌교수와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로버트 머튼 MIT 석좌교수를 비롯해 라인하트 수석부총재,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갈라일그룹 공동 설립자 겸 공동 회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진단했다.

◆“‘V자’ 회복 어려워”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직후 전 세계가 쏟아낸 재정·통화정책 덕분에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드는 것은 일단 막았다고 분석했다. 루벤스타인 회장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정책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내렸고 막대한 자금을 풀었다”며 “올해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이 두자릿수대 감소율을 기록하겠지만 Fed의 정책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공행진하는 증시도 이런 막대한 유동성의 힘”이라며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26일 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국제 콘퍼런스에서 199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머튼 미국 MIT 석좌교수가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화상 강연을 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 기저효과로 반등 올 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과 거리 멀어 각국 공동 참여해 백신 만들고 신흥국 부채 감면해야

원을 바탕으로 존슨앤드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 등에서 내년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불거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라인하트 수석부총재는 “세계 경제가 워낙 큰 폭으로 뒷걸음질쳤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완전한 회복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교역량이 코로나19 직전부터 줄었다”며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고 동시에 신흥국이

채무지급 불능 상태로 빠져들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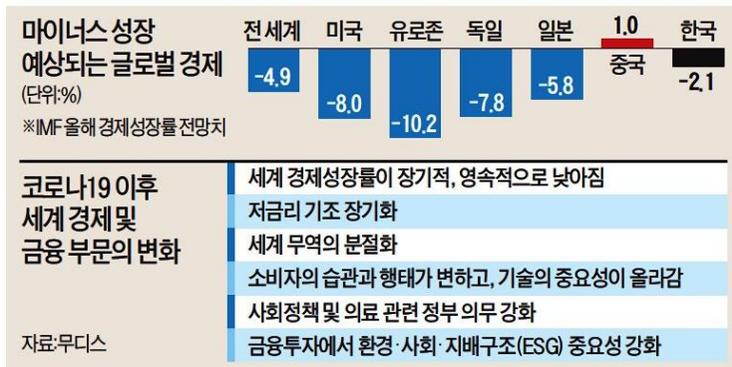
손 로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만큼 경제 활동 봉쇄 조치가 완전 해제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대면활동과 서비스 수요가 줄어 전 세계 일자리의 30%가량이 몰려 있는 서비스업이 타격받고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극복, 국제 공조 절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구명보트에

앉아있는 사람과 뒤틀려도 같이 노를 저어야만 안전지대에 닿을 수 있다”며 “지구에서 사는 모두가 공통의 문제를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각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백신 공동 풀’을 조성하는 등 협력해야 한다”며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들의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채권국들이 채무 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지프 슐페터가 강조했던 ‘혁신’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펠프스 교수는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과 신기술이 쏟아지고 미국의 성장도 견인했다”며 “슐페터적 혁신을 바탕으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김대훈/황정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 “세계경제, 예비타이어 없는 자동차 문제 발생대 회복 못해…공조 필요”

‘노벨경제학상’ 스티글리츠, 세계경제연구-하나銀 콘퍼런스 기조연설

단기수익 위해 장기 안정성 훼손  
각국 경제 회복력 현저히 떨어져  
코로나로 불황 장기화·극심 전망  
의약품 최저가 공급 등 협력해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리가 만든 세계 경제가 ‘스페어(예비)타이어 없는 자동차’와 다를 게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시스템을 회복할 능력을 잃습니다.”

지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사진)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콘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기조연설에서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코로나19가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들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이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는 모든 나라에서 정체를 보이고 GDP 교역량도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이전에도 각국 경제는 세계화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며 “제조업 기반에서 서비스업 기반으로



의 생산구조 전환은 코로나19로 더욱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기수익을 위해 장기 안정성을 훼손하면서 각국 경제의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불과 몇 분을 아끼기 위해 생산역량을 갖추지 않은 채 외부에 의존했고 이로 인해 마스크 등 방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일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제협력력이 필수적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는 우리가 상호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며 “보건과 환경·기후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구명보트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타더라도 같이 노를 저어 안전지대로 가야 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풀을 만들어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의약품이 최저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부 백신 보호주의나 부유층에게 최우선의 접근성을 주는 것은 절대 안 된

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초래할 경기불황은 장기적이고 극심할 것”이라며 “대공황 때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못했지만 이번에는 공조가 필요한 전 세계의 문제임을 깨닫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200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소요와 같은 혼돈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펠프스 교수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향후 10년·20년간의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 추정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활력을 잃었고 혁신도 큰 타격을 받았다”며 “자기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면 국가 붕괴나 사회적 소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카르멘 라인하르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겸 하버드대 석좌교수도 “코로나19 이후 세계 자본의 흐름이 거의 붕괴했고 교역량도 큰 폭으로 위축됐다”며 “1인당 소득은 대단히 심각하게 줄어들면서 저소득 노동자들이 실직 등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영세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해외 석학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한국에 오지 못하고 녹화와 생중계로 참여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aily.com

# 은성수 “코로나 플랜 A·B·C 고민 9월에 대출 재연장 얘기 없게되길”

## 금융권에 “같이 고민하자” 화두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는 9월에 (대출·보증) 만기를 다시 연장 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은행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 미래’ 국제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과 보증 만기를 연장했는데 계획대로 끝나면 ‘해피엔딩’이지만 다시 연장하고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일단 9월까지 잘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18면

그는 기조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이 길어지면 9월이 됐다고 우리가 갑자기 손을 털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 참가자들에게 9월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금



용권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9월30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플랜A

는 코로나19가 제대로 종식됐을 때, B는 제대로 끝나지 않을 때, C는 현재보다 악화했을 때 등으로 나눠 고민하고 있다”면서 “은행 등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과잉 유동성도 경고했다. 그는 “우리 금융 시스템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성·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에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좇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다 유동성을 정상화할 때 금융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미리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스티글리츠 “회복력 없는 세계 경제는 예비타이어 없는 자동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 “코로나 이후 장기 안목 중시하는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해야” 강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77·사진)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세계 경제를 ‘예비타이어 없는 자동차’에 비유했다. 평상시에는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도 문제가 생기면 위기 대처를 할 힘이 없다는 얘기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 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주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방한하지 못하고 영상 녹화본을 통해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회복력이 없다는 것은 단기 수익을



위해 장기 안정성을 훼손해 온 시장 경제의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중시하는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화가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역량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세계화의 퇴조를 시사했다. 이어 “결국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에서 긴밀히 협력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대공황 당시에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못 했지만, 이번에는 공조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 문제임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께 연설자로 나선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도 “코로나19 이후 세계 자금 흐름이 거의 붕괴됐고 교역량도 큰 폭으로 위축돼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문제가 나타났을 때 많은 국가가 고립주의적 성향을 보여 왔는데, 지금처럼 세계 1, 2위 경제 국가가 갈등하는 상태에서는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코로나19의 위기를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단기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제·사회 구조의 국가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세인기자

# 美 누적 확진자 250만명 넘어 전세계 4분의 1... '경제 봉쇄 재개' 우려

(28일 기준)

## 하루 4만명 이상 감염 '역대 최대'... 경기 회복 기대감 사그라들어

"V자형 경기 반등은 어렵다."

경제위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6일 **세계경제연구원**이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와 함께 쓴 '이번에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로 유명하다. 과거 800년간 66개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금융위기를 집대성한 책이다. WB가 지난달 그를 WB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앉힌 것도 이같은 전문성 때문이다.

## 코로나 환자 급증에... 낙관론 사라져

라인하트의 언급 중 특히 주목되는 건 "경제 수치가 (일부) 회복하는 모습은 기대할 수 있지만 (추세적이고) 탄력적인 회복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251만개의 일자리(비농업 부문)가 만들어지며 V자형 반등을 기대했던 월가에 찬물을 끼얹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달 비농업 고용(다음달 2일 발표)은 315만개 증가가 컨센서스다. 지난달보다 더 많다. 하지만 라인하트는 "이것이 완전한 회복인지 짐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그의 '우울한 전망'의 기저에는 코로나19가 과거 전염병과는 다르다는 판단이 있다. 경제 전면 봉쇄까지 시행한 전염병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가능성은 계속 살아있다는 의미다.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반면 만에 1000만명을 넘어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

비농업 고용 315만개 증가 전망에도 WB "완전한 회복 짐치는 데 신중해야"

JP모건 "경제활동뎀 확진자 늘어" BoA "4분기 부진 가능성" 경고

브라질, 美 이어 확진자 '세계 2위' 의료 취약한 중남미로 확산 추세

감이 급격히 사그라들었다. 미국에서만 역대 최대인 하루 4만명 이상이 감염되면서 일부 주들은 경제 재가동을 철회했다.

28일 블룸버그가 24개 국내의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소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미국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연율 기준(전기 대비 성장률을 연 단위로 환산) -34.5%로 나타났다. 1분기(-5.0%)를 한참 밑돈다.

그간 월가가 눈여겨봤던 건 2분기보다 3분기다. 2분기 최저 -50%까지 추락할 수 있지만 3분기에는 최고 40%까지 튀어 오를 수 있다는 V자형 반등 기대가 컸다. 뉴욕 증시가 이례적으로 신고가 랠리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가든스의 하드 록 스타디움 외곽에 마련된 코로나19 진료소에서 26일(현지시간) 차량들이 줄지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9000명 가까이 늘어나자 음주 행위를 금지했다. AP=연합뉴스

를 벌였던 것은 이같은 낙관론 시나리오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희망은 점점 약해지는 기류다. 무엇보다 경제를 다시 열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 IMF "올 중남미 성장률 -9.4%" 전망

JP모건은 "레스토랑 예약 건수 증가율과 신규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 신규 확진자는 늘 것"이라고 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는 "수요 이연(pull-forward)으로 2~3분기 때 소비가 늘 수 있다"면서도 "4분기 이후 다시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라인하트

의 경고와 맥을 같이하는 전망이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한국시간)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7만 5115명이다. 그중 4분의 1 이상인 259만 6537명이 미국에서 나왔다. 특히 전날 신규 확진자는 4만 3581명으로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사상 최대다. 경제 재개를 서둘렀던 플로리다주(9585명 ↑), 텍사스주(6079명 ↑), 캘리포니아주(4226명 ↑), 애리조나주(3593명 ↑) 등은 하루 사이 수천명씩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술집 문을 다시 닫는 등 경제 재개 보류를 결정했을 정도다. 문제는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코로

나19를 잡는 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00여개 코로나19 백신 후보 중 15개 물질이 사람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발생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테스트(3상 시험)하는 미국 모더나 등이 가장 앞선다는 평가다. 옥스퍼드대와 공동 개발 중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는 발생지의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한 2상 시험과 함께 3상 시험을 지난달 동시에 착수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치며 더 강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첫 백신이 나오지는 미지수다. 1000만명인 감염자가 2000만명, 3000만명으로 계속 늘

코로나19 주요국 누적 확진자 수	
국가	누적 확진자 수(명)
미국	259만 6537 (4만 3581)
브라질	131만 5941 (3만 5887)
러시아	62만 7646 (6852)
인도	52만 9577 (2만 131)
영국	31만 250 (890)
스페인	29만 5549 (564)
페루	27만 5989 (3625)
칠레	26만 7766 (4406)
이탈리아	24만 136 (175)
이란	22만 180 (2456)
전세계	1007만 5115 (17만 6568)

※( ) 안은 신규 확진자 수, 한국시간 28일 오후 5시 기준  
자료: 월드오미터

지, 또 언제 어떤 속도로 증가할지 등은 불확실한 셈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백신이 1년 안에 개발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팬데믹 이후에는 (그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는 미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재정과 의료 취약한 중남미와 남아시아의 무서운 확산세는 또 다른 걱정거리다. 브라질은 현재 131만 5941명으로 미국에 이은 확진자 세계 2위다. 하루 만에 3만 5887명 급증했다. 페루(27만 5989명)와 칠레(26만 7766명)의 경우 각각 7번째, 8번째로 감염자 수가 많은 나라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중남미 전체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는 -9.4%다. 인도의 경우 전날 2만 131명 증가한 52만 9577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 미국·브라질·러시아에 이은 세계 4위다. **김정남 기자 jungkim@**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국제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부터)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 참석자들.

연합뉴스김인철 기자

(9.9\*7.1)cm